

교회소식

- 그리스도인에게 선교는 의무가 아니라 기쁨입니다 ▪

아동부 겨울수련회가 2월 28일과 3월 1일에 걸쳐 팀 수양관에서 진행 중입니다. 학생들은 오후 3시에 교회 도착 예정입니다.

이번 주 수요일 저녁 7:30 교육관에서 3월 때제찬양과 기도모임이 열립니다.

: 오늘 청파성서학당이 끝난 오후2:30에 연습이 있습니다.

이번 부활절에 유아세례·세례·입교를 희망하시는 분은 사무실에서 신청서를 작성하시고 예비교육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사순절 기간 동안에는 사순절 달력에 나와 있는 실천사항들을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1부 예배	출 20:1-17 / 시 19 고전 1:18-25 / 요 2:13-22	2부 예배	요 14:1~7
-------	--------------------------------------------	-------	----------

오늘 식당 봉사 : 박미영 차혜심 이은주 윤정화 주은경 이건우 박기영
 다음 주 식당봉사 : 최현옥 김순자 공재량 김신실 안상숙 김혜영 이순용 이주경
 오늘설거지봉사 : 5여선교회
 다음주설거지봉사 : 6여선교회
 떡 커 피 대 접 : 김정진 김혜정

▪ 집 회 안 내 ▪

부별	시간	장소	부별	시간	장소
유 아 부	10:50	유아부실	1부 예배	09:30	교육관
유 치 부	10:50	유치부실	2부 예배	11:00	대예배실
유초등부	10:50	교육관	성서학당	13:30	교육관
중고등부	09:30	교육관	수요집회	11:00	교육관
청년회	13:30	청년회실	수요성경연구	19:30	교육관
토요성경읽기	10:30	세미나실	새벽기도회	06:00	교육관

- 우리교회의 주보는 재생용지를 사용하여 만듭니다 -



언제나 어디서나 그리스도인



우리를 당신의 몸으로 삼으소서

하나님께서로 나아가는 한적한 오솔길
 사랑과 나눔을 배우고 실천하는곳
 청파교회는 함께하는 공동체입니다

주일 낮 예배 순서

출애굽의 하나님, 인류 역사를 통하여 해방을 선포하시고 이루어 가시는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일제의 억압 아래 신음하며 울부짖던 이 땅의 탄원을 들으시고 주님은 응답하여 주셨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며 우리는 자유와 해방의 감격과 감사를 잊었습니다. 여전히 교묘한 착취와 약탈로 약자들은 피눈물 흘리고 있지만, 우리는 그들을 외면하고 나의 안위만을 꾀하였습니다. 용서하여 주십시오.

한결같이 긍휼을 베푸시는 주님, 우리도 주님처럼 친구의 사람다운 삶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내놓는 큰 사랑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가신 십자가의 길을 따라 이웃의 생명을 풍성하게 둔우는 삶을 살도록 이끄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립니다. 아멘.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 헌금 영수기 및 속회 보고 ·

십일조 및 월정헌금

고속이	김금순	김기석	김희우	김기성	이은정	김남종	오복순	김명하
오형일	김성우	박유경	김순자	김승현	김수진	김애순	김영순	김명아
김인석	이선화	김일량	이은옥	김재흥	최희영	김정민	이혜령	김정진
김혜정	김정화	김종락	박영신	김주영	노우영	김지윤	정영우	김지호
전혜리	김철수	유영남	김필순	김홍기	김희선	노성희	김만균	리우림
마유겸	마은겸	문홍일	박미연	박병구	김인순	박상욱	박예림	박옥식
박용진	김용원	박인혁	박준희	이기분	배삼순	백성래	신진식	변혜정
안길상	이형숙	안보혜	안세진	양상철	박재란	오미숙	우순덕	윤성종
김윤정	이경남	이범석	류정욱	이봉옥	이상준	오상희	이유진	이자영
이재삼	이지훈	이치림	강상연	임고운	오재형	임서영	임승동	백혜숙
임영	정경례	장영숙	장원호	박성희	장재영	김재영	정복순	정연희
정완수	김재광	정현숙	최미자	최종원	최형균	강경화	하정석	이명희
한성건	정지혜	한완식	임정자	허성호	진은혜	홍순복	홍춘숙	황경순
황원순	황자순							

감사헌금

강신철	이혜경	김명숙	김명순	이교영	김인걸	문영혜	김일량	이은옥
김재흥	최희영	김태정	김한글	김향자	김혜영	박미연	박병구	김인순
배삼순	신진식	변혜정	이고임	임명희	장근성	박희순	정복순	정선희
황규민	황규원	황인애	황종오	무명19				

생일감사헌금

장하연

녹색꿈헌금 권혁순 박혜경 김용진 안정준 우순덕 정수복 장미란 무명1

	백혜숙	박성희	백혜숙	문금석
	신진식	최경미	정복순	최경미
	장영숙	신영신	장영숙	신영신
	박홍재	박홍재	박홍재	백묘현
	권미숙	박미영	박효선	권미숙
	김금순	김금순	김금순	이순정
	곽권희	윤수진	곽권희	윤수진
	안홍숙	오현정	오현정	정현주
	김경혜	홍춘숙	김경혜	홍춘숙
	박혜경	박혜경	박혜경	이기분
	김재흥	오자영		
	김재흥	송형운		
	이범석	이진영		
	이범석	곽상준		
	신진식	이오복		

마음으로 읽는 글

별을 찾아서

- 신경림

소백산 풍기로 별을 보러 간다

별과 별 사이에 숨은 별들을 찾아서
큰 별에 가려 빛을 잃은 별들을 찾아서
낮아서 들리지 않는 그들 얘기를 듣기 위해서

별과 별 사이에 숨은 사람들을 찾아서
평생을 터벅터벅 아무것도 찾지 못한 사람들을 찾아서
작아서 보이지 않는 그들 춤을 보기 위해서

멀리서 큰 별을 우러르기만 하는 별들을 찾아서
그래서 슬프지도 불행하지도 않은 별들을 찾아서
흐려서 보이지 않는 그들 웃음을 보기 위해서

사람과 사람 사이에 숨은 별들을 찾아서
사람들 사이에서 사람이 다 돼버린 별들을 찾아서
내 돌아가는 길에 동무 될 노래를 듣기 위해서

히말라야 라다크로 별을 보러 간다

▪ 주님의 교회를 섬기는 이들 ▪

담임목사 : 김기석	부담임목사 : 김재홍 이범석
원로전도사 : 박옥식	전도사 : 장영숙 신진석
소속목사 : 한인철 한정애	소속전도사 : 이재훈
원로장로 : 김성한 윤정덕 강인식 김철수 구성실 조병무 방문성	
장로 : 한완식 윤석철 한상익 김인걸 김정민 박홍재 하현철	
지휘 : 윤주원 안홍숙	반주 : 최윤선 김수진 유청빈
차량 및 교회관리 : 김현동	

교우 여러분, 이제 평안히 돌아가십시오. 복음의 말씀을 들었으니 참 자유인답게 사십시오. 당장은 불편하고 설혹 손해가 나더라도, 주님께서 가리켜 보이시는 옳은 길을 따라 가십시오. 히브리인을 출애굽시키셨던 하나님 아버지의 긍휼하신 마음을 품고, 이웃을 향한 사랑의 수고를 아끼지 마십시오. 아멘. 이해득실을 따져서 삶의 방향을 약삭빠르게 뒤바꾸며 살아온 지난날의 모습을 반성합니다. 내 삶이 곤핍할 적에 주님께 서원했던 삶의 지향을 잊지 않겠습니다. 이웃을 위해 기꺼이 희생도 마다하지 않는 든든한 사랑의 버팀목이 되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동행이 되어 주십시오. 아멘.

주일오후집회 / 청파성서학당 강의 : 김기석 목사	수요 집회 / 설교: 김기석 목사
	수요 저녁 / 폐제 찬양과 기도 모임

다음 주 예배위원	설교	기도	성경봉독
	김재홍 목사 김기석 목사	공동기도 안길상 권사	서효진 선생 김윤정 집사

3	영접위원	김인걸 이민범 김경연 이명희 오자영 박시내
	헌금위원	김정민 권미숙

생각의 전환, 에너지 전환

과거에는 물, 공기, 땅, 숲, 쓰레기를 어떻게 잘 관리할 것인가가 환경 보호와 환경 문제의 주요 화두였습니다. 우리 모두는 이것들이 사람의 생명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고, 환경이 파괴되면 사람도 건강히 살 수 없다는 것을 체험적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환경 보호에 당위적 책임을 느낍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다소 생소한 ‘에너지’가 환경 문제에서 중요한 주제가 되었습니다. 에너지는 환경과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물, 공기, 음식 외에도 사람이 생명을 유지하는데 꼭 필요한 것 중 하나가 에너지입니다. 에너지는 추울 때 우리를 따뜻하게 해 주고 더울 때는 우리를 시원하게 해 줍니다. 어두울 때 빛이 되어주기도 하고 사람과 동물, 기계를 움직이게도 합니다.

그렇다면 에너지는 어디서 올까요? 오늘날 우리가 에너지원으로 사용하고 있는 석유, 석탄, 천연가스와 같은 화석연료는 모두 오랜 옛날, 동식물들의 사체에서부터 만들어진 것입니다. 어디서나 콘센트에 전원만 꼽으면 쓸 수 있는 전기 역시 화석연료로 만들어 집니다. 화석연료는 언젠가는 동이 나는 유한한 자원입니다. 핵발전을 통해 만들어지는 전기 역시 그 원료는 우라늄이라는 유한한 지구 광물에서 만들어 지기 때문에 자원의 유한성 측면에서는 핵발전을 통한 에너지 생산도 한계가 있습니다.

에너지 절약은 자원의 유한성 때문이라도 반드시 실천되어야 하지만 이보다 더 큰 문제는, 비교적 짧은 시간 동안 과다하게 화석연료를 사용하면서 배출된 특정 기체가 지구 대기를 따뜻하게 만들어 기후변화를 일으키고 있다는 점입니다. 가까이 우리나라만 봐도 기후변화로 인해 동해에서는 더 이상 명태가 잡히지 않고, 대구 지역에서는 더 이상

사과를 재배하지 않습니다. 장마는 사라지고 집중호우와 슈퍼태풍의 피해는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좀 더 넓게 보면 몰디브와 같은 섬나라는 2100년 즈음에는 해수면이 높아져 세계지도에서 사라진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의 약 16배나 되는 넓은 영토를 가진 몽골은 이미 국토의 70% 이상이 사막화의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우울한 현재와 미래의 근원이 에너지의 과다한 사용이라는 점은 에너지 문제가 환경문제 그리고 생명의 문제와 떼려야 뗄 수 없다는 것을 증명합니다.

생명의 귀함을 아는 우리라면 에너지의 전환에도 관심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에너지 전환은 어렵지 않습니다. 아주 간단한 생각의 전환을 통한 에너지 절약에서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먼저 우리 집에서부터 시작해 볼까요? 형광등은 LED로 교체하기, 가전제품 총량제로 가전제품 가짓수 불리지 않기, 에어컨 대신 천장용 대형 선풍기 쓰기, 청소는 빗자루와 손걸레로, 정수기 대신 물 끓여 먹기 등 조금만 생각해 보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습니다. 태양광발전기, 풍력발전기 설치 처럼 대단한 것을 하지 않아도 얼마든지 에코하우스, 에코빌리를 만들 수 있을 뿐 아니라 이러한 간단한 생각의 전환은 전기요금도 아껴 줍니다. 서울 동작구 성대골 마을은 매년 10%씩 전기사용량을 줄여가는 가정 절전소가 여럿 모여 ‘에너지 자립마을’로 유명해 졌습니다. 마을에는 LED 전등과 절전형 멀티탭 등을 파는 ‘에너지 슈퍼마켓’도 생겼습니다. 이를 보러 여기저기서 사람들이 찾아오고 덕분에 동네 식당, 카페 손님도 늘었습니다. 마을 전체에 신나는 일들이 자꾸자꾸 늘어갑니다.

추운 겨울이 물러나고 여기저기서 꽃망울 터트리느 3월이 되었습니다. 무엇이든 할 수 있을 것 같은 새 봄 3월의 첫날, 생각보다 쉬운 생각의 전환, 생각보다 별거 아닌 에너지 전환에 도전해 보면 어떨까요? 청과 환경부에서는 연말을 목표로 에너지 절전소 가정에 도전하겠다는 소식이 여기저기 꽃망울 터트리듯 터지고 있습니다.

<청과교회 환경부 교육팀>